

19~20世紀 初盤 先史學理論 發達에 대한 小考

崔 楨 苾*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20世紀 初盤과 先史學 |
| II. 19世紀와 先史學 | IV. 맺음말 |
| 1. 생물진화론과 문화진화론 | |

I. 머리말

선사학이 고고학적 발굴과 민속지(ethnography)의 연구를 통하여 인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간헐적인 발굴과 간략한 민속지를 바탕으로 선사학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나보디두스(Nabodidus:555-538 B.C.)는 고대의 역사에 호기심을 품고 수메루 유적지를 발굴하여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의도하였던 역사의 복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출토된 진귀한 유물들에 현혹 되어서 오직 유물의 수집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복원시키지 못했다(Daniel, 1981, p.14). 이와 비슷한 시기에 헤로도투스와 추키디데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당시 그들이 속해있던 찬란한 그리스 문화보다 매우 열등한 민족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흥미를 가졌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民俗誌의 자료를 바탕으로 착안한 史觀에는 역사가 전개되는 원인과 결과, 자연선택(진화), 그리고 先史學의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역사의 변천단계를 찾아 볼 수 없다(Kirk & Raven, 1966, p.338).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자, 先史學은 啓蒙主義 학문의 세계와 함께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계몽주의 학자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은 자연, 사회, 그리고 역사의 현상을 전개시키는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검증하여 진리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實證主義 이론은 당시의 역사학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 世宗大學校 教授 兼 博物館長

현대 역사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비코(Vico:1668-1744)는 고대 그리스 학자들과 세인트 오그스틴(Augustine)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의 원리와 발전법칙을 정립하였다. 비코에 의하면 역사의 연구목적은 역사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가 지적한 사회적 요소는 계급의식, 신화, 기술 등의 문화적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코는 역사의 유형을 문화형태로 간주하고 역사에 따라서 문화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고 가설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인류문화는 발전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石器時代에서 靑銅器時代 그리고 鐵器時代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 통예이지만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발전한다는 사실은 이미 B.C.7세기에 헤시오드가 제기하였다 (Bury, 1932, pp.40-41). 어쨌든 비코의 실증주의 역사철학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창세기설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태동시키려 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생물과 인류의 역사에 관심을 품은 학자들은 고고학적 발굴로서 역사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뒤따르게 되었다.

선사시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발굴, 지질학적 연구, 민속지를 통한 문화단계의 분류 그리고 생물의 진화론이 고개를 들면서 점차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선사학은 문화(사회)진화론과 생물진화론이 체계화 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분야로 부각되어 19세기의 생물과 문화진화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歷史的 特殊論과 新進化論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본고는 19세기를 거치면서 진화론이 성립되는 배경과 20세기 초반 신진화주의 1세대들이 등장하는 과정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19世紀와 先史學

19세기 학자들은 선사학이론 발전에 큰 획을 그어 놓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화진화론과 생물진화론의 정립이다. 그러면 19세기 선사학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18세기 말엽의 역사관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8세기 말엽 浪漫主義가 형성되면서 民俗誌를 바탕으로 문화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루소 (Jean-Jacques Rousseau:1712-1778)이다. 비코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인간의 원초적 성향을 역사속에서 規知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수많은 미지의 세계를 답사하였다. 특히 루소는 당시 카리브 海岸에 살고있던 中美의 인디언 문화를 관찰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인디언 문화를 인류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원시적인 사회조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화의 유형을 바탕으로 인간의 품성과 역사가 변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간 본연의 상태가 순수하고 좋하기 때문에 자연(원초적 상태)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의 性善說에는 분명히 진화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론 민속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진화설을 제기한 예는 계몽주의 학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몽테스큐(Montesquieu)는 한 민족이 보유한 기술·경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형태를 수렵-채집경제에 의존하는 야만사회(savagery)와 遊牧 또는 원시농경을 生計經濟로 하는 미개사회(barbarian)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몽테스큐는 룯소처럼 현지답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지 못했다(Gardiner, 1959, p.59-60).

18세기 말엽의 학자들은 대체로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보다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문화도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진보의 개념을 가지고 변화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같은 시대의 자연과학자들은 지구와 생물의 역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18세기 초반과 중반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지구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생물의 경우는 창조설을 따랐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의 형태는 하느님이 창조한 이래 변화가 다소 있었으나 생물들은 창조되었던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의 고정불변설은 스웨덴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린네(Linnaeus:1707-1778)에 의해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린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神이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생물의 창조설과 고정불변설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種이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않았다(Singer, 1959, pp.379-380). 反進化論을 주장한 린네는 그의 연구를 생물의 분류학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식물과 동물의 형태적 특질에 따라서 각 집단을 분류했다. 예를 들면, 식물의 경우에는 꽃송이의 모양, 곤충은 날개,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을 적용시켰다. 린네의 분류법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은 인간을 일반동물계열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는 당시 창조설을 주장했던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학파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별개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계보를 동물세계에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린네는 창조설을 믿었지만 그가 설정한 생물의 분류법은 당시로 보아서는 탁월한 식견이라고 할 수 있다. 린네가 제시한 屬과 種으로 형성된 생물의 조직적인 명칭방법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種에 속하는 모든 생물들이 공동조상으로 부터 파생되었다는 가설을 던져 주었다. 특히 인간을 동물계로 분류한 점은 인류의 진화설을 태동시키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린네의 생물에 대한 분류도식이 학계에 발표되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물의 진화설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뷔퐁(Louis Buffon:1707-1788)이다. 린네의 고정불변설을 부정한 그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즉, 뷔퐁의 점진변화설은 후튼(James Hutton:1726-1797)이 주장한 균일변동설(Uniformitarianism)과 같은 개념으로 지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속도로 과거는

물론 현재도 변화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린네가 제시한 생물의 屬과 種이 하나의 공동조상으로 부터 분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분화는 神의 섭리가 아니라 자연의 현상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그는 자연사의 연구목적을 단순한 생물의 형태학적 분류보다는 이의 변천과정을 규명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뷔퐁의 견해는 생명체의 변화가 자연환경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화의 개념을 피상적으로나마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뷔퐁은 생명체의 형태가 변화(transformation)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후에 출현한 다윈처럼 자연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種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Lovejoy, 1959, pp.111-112). 어쨌든 그의 생명체에 대한 변화의 법칙은 당시 학계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과 레마르크(Jean Lamarck:1744-1829)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에라스무스 다윈은 병원을 경영했던 의사인 동시에 유명한 詩人이어서 다방면에 학식을 겸비한 학자였다. 그는 손자 찰스 다윈이 진화설을 발표하기 반세기전에 이미 진화의 개념을 학계에 제기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에라스무스 다윈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 성의 선택(sexual selection), 보호적응(protective adaptation), 그리고 개체가 획득한 신체적 특질의 유전으로 변화(transformation)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진화 경우도 동일한 법칙으로 설명하였다(Francoeuer, 1965, p.68). 다윈의 할아버지가 착안한 자연선택과 연관된 생명체의 진화개념은 탁월한 식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생명의 개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한 신체적 특질이 그 다음세대로 유전된다는 가설은 진화의 체계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채서 기인된 것이다(Singer, 1959, p.505).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다윈은 앞에서 소개한 뷔퐁처럼 진화의 개념을 터득하였지만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자연선택과 성의 선택을 논의한 에라스무스 다윈의 진화에 대한 견해는 뷔퐁보다 進一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라마르크(Jean Lamarck:1744-1829)의 진화에 대한 개념도 역시 뷔퐁 그리고 에라스무스 다윈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위의 두 학자들 보다는 좀 더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생명체의 형태학적 지속성은 생명체의 생활조건과 비례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생활조건이 바뀌면 그 형태도 변화한다고 믿었다. 라마르크에 의하면 형태적 변화는 생명체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면 자연환경에 적합한 형태적 특질이 개발된다고 한다. 그는 생명체가 필요에 의해서 획득한 신체적 특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먹기 위해 기린이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린의 목이 길어졌고 길어진 목은 다음 세대로 유전 된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라마르크의 견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찰스 다윈에 의해서 후에 밝혀졌다. 그러나 라마르크가 주장한 자연선택설 즉, 자연환경에 적합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생명체만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가설은 진화론의 기본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19세기 말엽의 학자들은 생물진화의 철학적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학자를 라마르크라고 지적했다(Clodd, 1897, p.115).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명체의 변화설이 학계에 제기되자 진화의 개념은 지구 자체의 역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18세기 말엽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대규모의 운하와 철도 건설작업을 유발시켜 地質學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 당시 영국의 토목기술자 스미스(William Smith:1769-1839)는 수많은 건설현장에 노출된 지층과 암석층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 층위가 神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으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스미스의 이론에 의하면 다양하고 거대한 자연의 퇴적층위는 장구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는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6천년” 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지층의 형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 자연의 균일변동설(Uniformitarianism)을 설명했고 또한, 오래전에 소멸된 여러가지 동물들의 화석을 바다층 위에서 발견하여 種의 소멸과 새로운 種의 진화를 지질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학자이다(Judson, 1976, p.131).

선사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8세기 학자들의 진화론에 대한 제반견해를 살펴보았다. 지구와 생명체가 변화했고 이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보다는 더 오래되었다는 가설이 18세기 말엽에 와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두된 진화설은 유명한 프랑스 학자 큐비에이(Georges Cuvier: 1769-1832)의 도전을 받아서 다시 혼란을 맞게된다. 라마르크와 동시대 학자였던 큐비에이는 비교해부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생물학을 세분화 시켜서 동물학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동물계를 해부학에 기초하여 네 집단(척추동물, 연체동물, 복합동물, 식충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형태학적 특징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한다. 생명체의 신체적 특징을 자연환경과 연계시킨 큐비에이의 이론은 앞의 진화주의자들과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그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생명체의 고정불변설을 믿었다. 큐비에이는 종교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는 않았지만 창조론을 수용하여 種의 소멸과 새로운 種의 출현과정을 天災地變說(Catastrophism)로 설명하였다. 그의 天災地變說에 의하면 과거에 맘모스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으나 갑작스러운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 소멸되고 神이 창조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재해를 입지 않은 타지역에서 재해지역으로 옮겨와서 서식하여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큐비에이는 새로운 種의 출현과 지층의 형성과정을 연속성과 상호연계성을 지닌 진화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명체의 大絶滅과 교체설로 설명하여 생명체의 고정불변설을 다시 강조한 학자이다. 비록 그는 생명체의 창조설을 믿었으나 천재지변은 神이 아닌 자연의 현상 때문 이라고 서술한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진화설에 결정적인 쐬기를 박아 놓았다고는 볼 수 없다.

1. 생물진화론과 문화진화론

학문의 발달사를 살펴볼 때 19세기는 결정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랜기간 동안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어 왔던 창조설이 무너지고 문화와 생물의 진화론이 자리를 잡아서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진화설이 끈질기게 논의되고 있을 때, 문화진화설은 계몽주의와 초기낭만주의 학자들이 채택했던 민속지의 자료를 한 단계 넘어서 과거 인간이 남겨놓은 유물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최초의 고고학자라고 칭송받는 톰센(Christian Jurgensen Thomsen: 1788-1865)은 1816년 덴마크 왕립박물관의 관장직에 임명되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인류역사에 대한 三時期法(Three Age System)을 정립하였다. 삼시기법의 개념은 톰센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분석한 결과 石器, 靑銅器, 그리고 鐵器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도 이러한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달해 왔다는 논리이다. 물론 당시 코펜하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들은 코펜하겐대학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수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당시에 사용되던 민속품들이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홀스타인 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찾아낸 출토품이란 점이 큰 의미를 준다고 하겠다.

인류의 역사가 톰센이 제시한 도식과 비슷한 문화단계를 거쳐 왔다는 주장은 이미 헤시오드에 의해 B.C. 7세기에 거론되었고 로마시대의 학자 루크레티우스(Lucretius: B.C. 98-55) (Bury, 1932, p.40-41)와 중국 漢나라의 강연모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바 있다 (Chang, 1988, p.5). 또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학자들에 이어 덴마크의 역사학자 섬(P.F. Suhm)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제작한 전쟁무기의 재료가 석기와 청동 그리고 철의 순서로 진화되었다고 1776년에 발표했다(Daniel, 1981, p.56). 그러나 톰센이 정립한 三時期法 이전에 언급된 문화진화에 대한 가설들은 모두가 상상과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톰센은 박물관에 수장된 유물을 삼시기법으로 분류 정리하여 1819년에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그의 유물진열 방법은 스칸디나비아 인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학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는 1836년에 박물관 유물의 진열에 대한 과학적인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러한 톰센의 업적은 선사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고 나아가서 문화진화론의 발달을 앞당겨 놓았다. 그가 고고학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이유도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유물을 대상으로 선사학의 개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편년하였고 이와 같은 편년법은 오늘날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톰센은 최초의 고고학자 이지만 자신이 유물을 직접 발굴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가설이 발굴된 유물을 대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초기에는 입증된 것이 아니다. 톰센의 가설을 현대 고고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증명한 사람은 덴마크의 고고학자 우세(J.J.A. Worsaae: 1821-1885)이다. 우세는 1843에 덴마크의 남부해안 지역을 발굴하여, 가장 바다

층에서 돌로 만들어진 연모, 그리고 다음 층에서는 청동제품, 마지막 층위에서 철제유물들을 발견하였다(Graslund, 1987, p.18). 우세는 덴마크의 여러 유적지 발굴에서 층위의 법칙과 유물의 공반법칙(Law of Association)을 정립하게 되었다. 층위의 법칙이란 지질학에서 말하는 지층의 원리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지층이 아래에서 위로 쌓여왔기 때문에 아래에 형성된 지층은 위의 지층보다 오래되었다는 상대연대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물의 공반의 법칙은 유물들이 동일한 층위에서 발견된다면 같은 시기에 매장되어 서로 문화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톰센의 삼시기법은 우세에 의해서 층위의 법칙과 유물의 공반법칙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현대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물론 모든 민족의 문화가 톰센의 도식에 따라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고고학을 중심으로 문화진화론이 제기되던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아베빌(Abbeville)의 세관에 근무하던 뻬르트(Jacques Boucher de Perthes: 1788-1868)는 1837년에 소므(Somme)강변의 바닥층에서 다량의 주먹도끼(hand axes)와 소멸된 동물들의 뼈를 발굴하였다. 그는 이 유물들이 큐비에이가 설명한 천재지변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들이 남긴 유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뻬르트는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 강한 집념으로 발굴을 계속하여 더 많은 구석기 유물들을 찾아 내었다. 그리고 발굴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1847년에 간행되어 구석기시대 연구의 장을 열었다(Fagan, 1978, p.30).

선사학과 진화론의 발달은 18세기 이후부터 지질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예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톰센의 가설을 입증시키는데 공헌하였고 아울러 구석기시대의 규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19세기 진화론을 거론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지질학자는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이다. 라이엘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으나 진화론에 관심을 가지고 유럽의 여러지역과 북미를 답사하면서 지층의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는 오랜기간의 현장조사와 과거에 거론되었던 지각과 생명체의 변화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1785년에 후튼이 주장했던 지구의 균일변동설(Uniformitarianism)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라이엘이 1830-1833년에 저작한 3권으로 엮어진 지질학 원론(Principles of Geology)에 의하면 지구의 형태는 큐비에이가 생각했던 가설 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계속해 왔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라이엘의 업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만 하다. 첫째 지구의 모양은 변화를 지속해 왔다. 둘째 지구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보다는 수백 만년 이상 더 오래되었다. 이러한 라이엘의 지형에 대한 변화설은 당시 학자들이 진화론을 수용하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천을 거듭해 온 자연환경 속에

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모습도 탈바꿈 해왔다는 진화의 가능성을 다윈에게 심어 주었고 다윈 또한 라이엘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1865년에 영국학자 러복(John Lubbock)이 집필한 선사시대(Prehistoric Times)에서 언급된 구석기시대의 문화단계를 지질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하여 인류문화가 적어도 네가지 단계인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초기철기시대의 순서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 지질학 원론 제10판에 삽입해 놓으므로 선사학의 기틀도 다져졌다(Daniel,1963, p.58).

지금까지 우리는 선사학의 발달이 진화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진화의 개념은 민속지, 고고학, 지질학 그리고 생물학적 연구가 서로 연계되어 서서히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생물의 진화가 정식으로 학계의 공인을 완전히 받게 된 것은 다윈의 업적 때문이다.

다윈(Charls Darwin:1809-1882)은 부유층 신분으로 자라나 그의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릴적 부터 생명체의 변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다윈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에딘바라 의과대학에 진학하였으나 2년 후에 의학공부를 그만두고 켄부릿지의 크라이스트 신학대학으로 편입하였다. 신학대학 학창생활에서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다윈은 우연히 신학대학의 식물학 교수인 헨슬로(John S. Henslow)목사를 만나게 되어 다시 자연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윈은 1831년 그의 나이 스물 두살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뚜렷한 직장을 잡지 않고 집에서 소일 하던중 헨슬로 교수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자연탐사에 대한 학술조사단이 조직되어 세계의 여러 지역을 항해하게 되었는데 다윈을 가장 적격자로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이 한통의 편지가 다윈의 일생은 물론 세계 과학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1831년 12월 다윈은 조사단과 함께 비글호(Beagle)에 승선하자 곧 바로 그가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지질학에 관한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몰입했다. 다윈이 승선한 비글호는 아프리카 해안과 남태평양의 열대군도, 그리고 남미를 거쳐서 5년간의 항해 끝에 귀국하게 되었다.

다윈은 항해 도중에 여러 미지의 지역을 탐방하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군을 포함하는 자연생태계를 세밀히 조사 기록하였다. 그는 자연탐사를 시작한지 불과 1년만에 도마뱀이 다리가 퇴화하여 일반 뱀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화석에서 보이는 고대 동물들이 비록 몸집의 크기는 다르지만 현존하는 일부 동물들과 진화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심증을 굳혔다. 그후 남미지역에 도달한 다윈은 안데스 산맥을 분수령으로 서쪽과 동쪽지역의 생태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에콰도르의 서쪽에 위치한 갈아파고스 군도(Galapagos Islands)를 방문한 다윈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곳의 식물과 동물군은 남미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갈아파고스의 여러 섬들에 서식하는 참새과에 속하는 새들의 경우 주둥이, 몸집의 형태 그리

고 깃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지만 각 섬에 따라 種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윈은 생명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골몰이 생각한 결과 자연의 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연의 힘이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의미한다. 즉, 자연은 자연환경에 적합한 생명체만 생존의 길로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다윈은 그의 진화론에 기본 원리가 되는 자연선택설을 1842년에 초고를 작성하고 1844년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정리하였으나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 관계로 학계에 발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영국의 자연학자 월레스(Alfred A. Wallace: 1828-1913)가 말사스의 인구론을 응용하여 동남아시아 열대 군도의 생물진화에 대해 집필한 논문을 1858년에 입수하게 되었다(Lowenberg, 1959). 월레스의 논문을 숙독한 다윈은 너무나 놀랐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독자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내었기 때문이다(Darwin, 1950, p.201). 다윈은 서둘러 그의 친구 지질학자 라이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라이엘의 주선으로 두 사람의 논문이 1858년 7월에 개최된 린네학회(Linnaean Society)에 발표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자연선택설은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린네학회는 자연선택설을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책으로 집필해 줄 것을 다윈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에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자 그의 저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바로 매진되었다.

종의 기원에 발표된 다윈의 생명체에 관한 진화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그들이 자연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의 양 보다 그들의 자식을 더 많이 생산한다. 둘째, 모든 생명체는 서로 變異(variation)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種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체의 개개 생김새는 서로 다르다. 셋째, 자연환경은 환경의 적응에 유리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개체만을 선택하고 선택된 개체들의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생존을 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반면에 선택되지 못한 생명체들은 도태된다. 넷째,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자연환경이 변천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종이 개발되거나 또는 생명체의 형태도 변화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명체의 선택단위 문제이다. 자연은 집단 전체를 선택(group selection)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속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하나 하나씩 선택하여(individual selection) 결과적으로는 선택된 개체들이 한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윈은 자연선택설을 진화의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교접, 화석에 나타난 고생물학, 층위의 변화를 말해주는 지질학, 그리고 지역에 따라 분포하는 생명체의 형태를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윈의 연구는 당시 창조론을 신봉하던 일반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특히, 인간도 다른 생물과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진화되었다는 그의 주장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다윈이 생명체의 진화개념을 과거의 학자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학계에 제시한 것은 아

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생명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한 예로 다윈은 멘델의 유전법칙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채 검은색과 흰색의 페인트를 혼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제2세의 생김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진화법칙은 후에 출현한 멘델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다.

생명체가 변화해 왔다는 진화론은 다윈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설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진화의 개념이 학계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18세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학자들의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 이들 학자들 중에서도 말사스, 라마르크, 그리고 에라스무스 다윈의 연구는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그 맥을 이어 주었다. 특히, 말사스(Thomas R. Malthus: 1766-1834)가 집필한 인구론의 골격을 이루는 적자생존의 원칙설은(Malthus, 1798)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첫째로 제시한 인구(생명체)의 증가에 비교하여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이 따르지 못한다고 언급한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분명히 다윈이 말사스의 이론을 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주지할 사실은 진화의 개념문제이다. 다윈이 1859년에 집필한 종의 기원에서는 진화(evolu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후에 일반화된 진화의 개념을 생명체의 후세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a change as a descent with modification)로 보았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사회진화론자 스펜서의 진화에 대한 관점과 비교할때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쌍-시몬, 폼트, 콘돌세 등 계몽주의 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문화와 생물에 대한 진화설을 다윈 보다 먼저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는 실증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1852년에 문화진화의 원리를 명백하게 제시하였고 뒤이어 생물의 진화개념을 문화진화의 기본 틀에 적용시켰다. 그러므로 스펜서는 “진화”(evolution)란 용어를 문화와 생명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정의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진화를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보(progress)로 보고 초유기체(문화)와 유기체(생명체)를 포함한 지구의 제반현상을 진화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스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진화는 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 또는 단순형태에서 복합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Spencer, 1852, 1855). 이러한 시각에서 스펜서는 생명체의 형성과정을 지구의 지질학적 운동으로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고 自然力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인류사회는 가족단위의 집단사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가와 연맹제국으로 진화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스펜서의 인류문화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보편진화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겠다.

스펜서가 착안한 문화진화론의 기본 법칙은 적자생존설(survival of the fittest)이다. 적자생존의 개념은 생물의 진화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연선택설과 비슷한 원리를 지니며 문화진화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하면 인류문화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사회간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열등한 사회가 도태하고 보다 우수한 사회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생존의 법칙을 사회적 다윈주의 또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화론에 대한 전문서적을 섭렵하지 못한 일반 학도들은 사회적 다윈주의(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대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용어의 뜻을 풀이하면 스펜서의 문화진화론을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칭하기 때문에 마치 스펜서가 다윈의 생물진화론을 빌여와 문화진화론에 적용시킨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잘못된 논리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화(evolution)란 용어는 스펜서에 의해서 먼저 사용, 정의되었다. 그리고 문화진화론이 생물진화론 보다 앞서서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소개된 이유는 다윈의 생물진화론이 문화진화론 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펜서와 다윈이 제시한 진화설은 학계의 지지를 받았으나 인류의 선사문화가 어떤 형태로 변천 해왔는가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두 학자들의 선사학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 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톰슨이 정립한 3시기 분류법에서 더 이상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사학은 영국의 한 학자에 의해서 다시 진보의 길을 걷게 된다. 톰슨의 3시기 분류법은 덴마크와 스위스의 호반지역 문화층에는 맞아들어 갔으나 프랑스와 영국에 위치한 유적지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소므강변과 드봉(Devon)동굴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층위를 세밀히 조사한 영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러복(John Lubbock: 1834-1913)은 톰슨이 분류한 석기시대가 두가지 문화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러복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유적지의 바닥 석기 문화층에서는 격지(flake)를 비롯한 타제석기가 출토되는 반면에 바로 위층에서는 마제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유적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반자료를 분석한 러복은 인류문화가 두가지 단계의 석기시대를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인간이 타제석기를 사용했던 시대를 “구석기시대” 그리고 마제석기를 제작했던 시대를 “신석기시대”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러복은 Palaeolithic(구석기시대)과 Neolithic(신석기시대)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학자이다. 그는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1865년에 선사시대(*Prehistoric Times*)라는 책을 저술하여 선사시대와 관련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의 저서는 선사학과 인류문화의 진화를 소개했다는 관점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Daniel, 1963, pp.58-59).

19세기 중엽은 문화진화론이 정립됨에 따라서 인류학이 새로운 학문의 분야로 등장하고 이에 선사학도 발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문화진화론을 현장조사의 방법론을 도입해 체계화시킨 학자는 볼칸과 타일러이다. 이들 두 학자는 스펜서의 문화진화론을 계승하여 인간과 문화의 연구에 바탕을 둔 인류학을 창시했다고 볼 수 있다.

몰간(Lewis Henry Morgan:1818-1881)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市の 변호사출신으로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일로꼬이(Iroquois) 인디언의 보호구역 분쟁문제를 변론하면서 인디언들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몰간은 일로꼬이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가족호칭을 조사한 결과 당시의 유럽인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일로꼬이 인디언들은 아버지 세대의 모든 남성친척들을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모든 여성친척들을 어머니라 호칭하여 생물학적인 부모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 특이한 점은 자신(ego)의 세대에 속하는 모든 남자친척을 형제, 그리고 여자친척을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에 몰간은 친족의 호칭은 결혼의 형태와 가족제도로 부터 유래되었다는 생각에서 친족의 호칭과 가족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당시의 여러 인디언 집단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자료는 인편을 통해서 수집해 나갔다. 몰간이 제반종족으로 부터 입수한 친족호칭을 분류하여 도출해 낸 사실은 인간의 결혼형태가 집단적인 난혼형태에서 출발하여 문화의 진화로 여러형태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일부일처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가족호칭의 비교연구를 근거로 혈족과 인척제도(System of Consanguinity and Affinity)를 1871년에 출간하여 선사시대의 결혼형태와 가족제도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진화론과 연관된 몰간의 또 다른 업적은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진화설이다. 그는 친족연구의 개념을 넓혀서 인디언들과 타민족의 문화를 비교문화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문화진화론의 도식을 설정하였다. 몰간은 계몽주의 학자들이 제시한 인류문화의 진화단계 - “야만시대”(savagery), “미개시대”(barbarian), 그리고 “문명시대”(civilization)를 수용하고 이들 문화단계 중에서 야만시대와 미개시대를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었다. 몰간의 문화단계분류법은 각 시대의 기술, 도구형태, 생산수단에 기초하였으며 이들 세가지 형태의 기술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몰간의 논리에 의하면 기술과 경제수단이 사회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고 인류의 문화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7개의 문화단계를 거쳐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유물론적 문화진화론에 입각하여 몰간이 1877년도에 출간한 고대사회(Ancient Society)는 대서양을 건너가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Harris, 1968). 그리고 그의 유물론적 진화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선사학의 연구, 특히 진화의 핵심적인 요소와 시대구분을 설정하는데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신대륙에서 몰간이 문화진화론을 적용하여 선사시대의 변천단계를 설정하고 있을 무렵 유럽에서도 타일러(Edward Tylor: 1832-1917)에 의해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일러는 영국의 부유층 출신으로 어릴적 부터 선교사와 여행가들이 집필한 원주민사회의 문화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고 남다른 흥미를 가졌다. 그러던 중에 타일러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양을 목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신대륙의 멕시코와 인접지역에 6개월 가량 체류하게 되었

다. 바로 이 기회가 타일러를 문화인류학자로 변신시켜 놓았다. 그는 다양한 인디언 문화를 관찰한 결과 인류문화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복잡한 형태로 진보해 왔다는 확신을 굳히고 문화진화론을 발표하였다. 타일러가 설정한 진화도식 역시 몰간이 시도했던 것처럼 계몽주의 학자들의 문화단계 방식을 차용하여 야만시대-미개시대-문명시대 순서로 문화의 고리를 이어 나갔다. 타일러의 문화진화설에 의하면 야만시대는 돌로서 생활용구를 제작하였고, 수렵-채집이 주된 경제생활로 특징지어 진다. 그리고 미개시대는 농경과 금속문화가 시작되었으며, 문명시대에 와서야 비로서 문자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민속지의 비교문화론을 바탕으로 문화를 연구한 타일러는 모든 인류문화가 정해진 도식에 따라 진화하고 있거나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몰간의 이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구석기시대와 같은 개념인 야만시대를 거쳐왔다는 증거의 예로 19세기에 존재했던 수렵-채집 경제사회의 문화양상을 제시했다.

타일러는 또한 통시적 측면에서 인류문화가 진화하였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遺制”(survival)의 개념을 적용시켰다. 타일러에 의하면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는 傳承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야만시대 또는 미개시대의 문화적 요소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현재의 문명사회에 殘在가 남아 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문화요소의 잔재를 遺制라 정의하고 유제의 개념을 과거사회와 현재사회의 문화적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증거로 채택하였다.

타일러의 문화 진화단계는 동시대의 학자인 몰간과 유사하게 유물론에 입각하여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의 연구는 물질문화의 분류방법을 탈피하여 인간의 관념체계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특이하다. 그가 1871년에 집필한 “미개문화”(Primitive Culture)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종교의 개념도 진화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종교의 발전을 인간의 사고력과 연결시켰다. 즉, 야만시대의 인간들은 어린이들처럼 생각이 단순했기 때문에 초자연의 세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면서 경험세계가 축적되어 죽음, 꿈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초자연적 세계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자연속의 모든 만물도 인간의 경우처럼 靈의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과 영혼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의 개념을 바탕으로 精靈崇拜思想(animism)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관념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타일러의 주장이다. 그가 종교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착안한 에니미즘의 개념은 영혼의 세계 또는 초자연의 힘을 믿는 것을 말한다. 타일러의 논지에 의하면 종교는 에니미즘에서 출발하여 주술적 행위가 첨가되어 多神敎로 발전하고 마지막 단계인 문명시대에는 一神敎로 진화했다고 한다.

타일러는 문화진화의 요인을 인간이 타고난 보편적 심리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심리는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문화가 진화하게 된다

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문명사회로 분류된 서구인들은 발달된 지능을 이용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원주민 사회의 경우는 사고력의 결핍으로 윤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야만 또는 미개사회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인류학, 특히 선사학의 성립과정에서 타일러의 업적은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민속지의 비교문화론을 바탕으로 인류의 선사시대를 규지할 수 있는 문화진화론을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개념도 정의하였다. 앞장에서 이미 논의한 타일러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미국인류학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물간과 타일러는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문화진화론을 인류의 역사에 대입시켜 선사학의 모체가 되는 인류학이란 학문을 개척한 학자이다. 우리는 이들 두 학자를 진화론의 발달사에서 單線進化主義라고 분류한다. 왜냐하면 물간과 타일러는 인류문화가 획일적으로 정해진방향에 따라서 진보의 개념을 지닌채 진화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문화진화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20세기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첫째로, 모든 문화가 그들이 설정한 도식에 따라 야만시대에서 문명시대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속지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어떤 문화는 야만시대 또는 미개시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문화는 야만시대에서 미개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문명시대로 진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시한 單線進化論은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특수성 내지 상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비판을 받는 점은 인간의 지능과 관계된 진화의 測度문제이다. 민속지의 비교문화론을 연구한 19세기 문화진화론자들은 각 집단의 사고능력에 따라 문화의 진화 또는 발전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물간과 타일러가 조사한 문화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동일한 현생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두뇌의 지능이 서로 비슷하다. 비록 각 집단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내재된 생활도구, 등의 물질문화는 서로 우열을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가지 사회제도를 포함하는 정신문화는 그렇지 못하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창출됨으로 사회의 존속을 위해 그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아무리 원시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은 중요하며 나름대로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진화론의 도식에서 귀착점은 서구문화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만약 19세기 문화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서구중심의 민족우월감 혹은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에 빠져 민족적 편견을 지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예는 현대 고고학의 연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문화진화론의 전개과정을 논의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국내의 역사학자들은 진화론을 한국고대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진화론이 다윈의 생물진화론으로 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진화론의 발생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 또한 잘못된 견해를 알 수 있다. 필자가 국내의 학술지에 소개한 것처럼 (최정필, 1988, 1994) 19세기 중엽에는 두 갈래 계통의 진화적 이론이 학계에 제기되고 있었다. 하나는 스펜서가 사회과학의 철학적 이론의 틀에 근거하여 인간사회는 통시적인 측면에서 적자생존의 기치하에 진보의 개념을 가지고 변천한다는 사회진화설이며 (Spencer, 1862, p.216), 다른 하나는 경험에서 얻어진 자연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말한다. 두 학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진화의 개념을 발전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형태를 문화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진화의 개념을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로 보았다(Darwin, 1859). 따라서 양자간의 진화요인과 관점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스펜서는 진화를 개체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 전개되어 통합단계로 형성된다고 생각했고, 다윈은 개체가 피동적 입장에서 자연에 의해 선택되어 변화한다는 논리를 전개시켰다.

앞에서 열거한 두 학파는 진화의 요인과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진화”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윈이 1859년에 발표한 “종의 기원”에서는 진화(evolution)란 용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1872년에 간행된 종의 기원 제6판에서는 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지만 (Darwin, 1872, pp.201-202, 424)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않은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스펜서는 “진화”라는 용어를 다윈 보다 먼저 1862년에 사용하였고 진화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내렸다. 그가 저술한 1862년의 저서 제일의 원리(First Principles)에 의하면 하나의 모호한 동질성이 계속적인 분화와 통합을 거치면서 명확하고 획일적인 이질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나 (Spencer, 1862, 216), 후에 이를 수정하여 진화는 절대적인 동질성으로 출발하지만 반드시 이질성으로 귀착하지않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본다면 인류학의 창시자인 타일러가 1871년에 출간한 미개문화(Primitive Culture)와 몰간이 1877년에 발표한 고대사회(Ancient Society)에 기술된 문화진화론의 이론적 틀은 다윈의 학설보다는 스펜서의 사회진화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며 후에 설명하는 20세기의 新進化論者들 까지도 스펜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다윈의 생물진화론 자체도 말사서의 인구론을 응용하였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진화론은 다윈의 생물진화론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교문화론과 고고학, 지질학 그리고 생물학을 바탕으로 정립된 19세기 진화론은 선사학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인류의 역사에서 선사시대가 차지하는 시간적 深度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서 大主教가 구약성서의 자료를 응용하여 산출한 인간의 역사는 물론 큐비에이의 天災地變說도 종교적 도그마로 밀려나 관계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반면에 진화론이 자리를 잡았다. 둘째, 인류의 완전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사시대의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고

조되면서 선사학이 학문의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영국학자 러복은 선사학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가 집필한 “선사시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간의 학문세계에 또 하나의 분야가 생겨났으니 이가 바로 선사학이다. 선사학은 文字가 출현하기 이전의 장구한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고고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과학이다” (Lubbock, 1872, p.1).

19세기 말엽에 접어들면서 선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기술의 발달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간의 고고학적 발굴은 유적지를 막연하게 파헤쳐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영국군의 장교출신(고고학 문헌에서는 그를 장군으로 호칭함)인 핏트-리버(Pitt-Rivers: 1827-1900)에 의해 과학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진화론에 입각하여 당시에 발굴된 근대 銃器類의 형식분류를 시도하여 고고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핏트-리버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인간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과학적인 발굴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과거 사회의 총체적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보물찾기식의 부분적 발굴을 탈피하고 인간이 남긴 모든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사실을 학계에 주지시켰다. 그가 고안한 발굴방법은 먼저 발굴지역을 그리드(grid) 식으로 구획을 설정한 다음에 표토에서 부터 층위의 순서에 따라 발굴을 하는 것이다. 그의 발굴방법에서 가장 팔목할 사실은 층위와 출토된 모든 유물의 위치를 세밀히 기록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일부학자들이(Thompson, 1977)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핏트-리버는 시대를 앞서 갔던 고고학자이며 그가 고안한 발굴 방법론은 현대고고학의 발굴에 기본적인 틀로 응용되고 있다.

인류의 선사시대에 대한 호기심은 수많은 유적의 발굴과 발견을 가져왔다. 유럽 학자들은 로마와 그리스 이전의 인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고대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 지역의 유적지를 발굴한 반면에 美新大陸의 학자들은 당시 생존하던 인디언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바꾸어 말하면 유럽의 학풍은 고고학을 통해 인류의 보편사를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서술했고 미국학자들은 인종(종족) 및 문화의 기원과 지역역사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 인디언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던 미국학자들은 선사학 분야가 고고학적 발굴과 민속지의 비교문화론적 연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선사학을 인류학 분야에 포함시켰다. 바로 이러한 학문적 경향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선사학을 고고학 또는 역사학의 분파로 간주하였고, 미국은 선사학을 고고학속에 포함시켜 인류학의 한 분야로 설정하게 되었다.

III. 20世紀 初盤과 先史學

모든 인류문화가 정해진 방향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진화한다는 단선진화론은 20세기 초반에 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단선진화주의를 맹렬히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는 보아즈(Franz Boas: 1856-1942)이다. 독일 태생의 미국 인류학자인 보아즈는 복합체로 형성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각 민족이 걸어온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진화론에 함축된 문화의 일반적 법칙을 부정하고 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에 초점을 두었다. 보아즈에 의하면 각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도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문화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그는 문화상대론에 입각한 역사적 특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보아즈는 수많은 북미 인디언 문화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의 관습에 대한 자료는 물론, 모든 유물을 수합하여 비교문화론적 연구방법론을 탄생시켰다. 보아즈의 연구방법론은 당시 고고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서로 비교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시켰고 민속지고고학을 통하여 선사문화의 복원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Hatch, 1973).

보아즈의 업적으로 인류학이 미국학계에 기초과학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고 그의 학문관을 역사적 특수주의(historical particularism)라고 칭한다. 보아즈는 문화인류학, 고고학, 체질인류학 그리고 언어인류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기 때문에 현대 인류학의 아버지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다.

역사적 특수주의는 1920대에 접어들면서 극단적인 文化相對論을 탄생시켜 문화진화론에 쉼기를 박아 놓았다. 보아즈의 후학들은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속지를 연구하였고 선사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와서는 선사학을 중심으로 문화진화론이 다시 학계에 제기되고 일부 문화인류학자들도 이를 지지하였다. 당시 문화진화론을 재생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차일드, 라코-호일, 스투워드 그리고 화이트이며 이들을 新進化主義(neo-evolutionism)라고 부른다. 고고학자와 문화인류학자로 구성된 신진화주의 이론은 선사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됨으로 이들의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신진화론을 학계에 처음으로 재생시킨 학자는 오스트랄리아 출신인 영국 고고학자 차일드(V. Gordon Childe: 1892-1957)이다. 차일드의 선사학에 대한 접근방법은 진화론과 유물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문화의 변천을 경제생활, 사회조직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 관점에서 설명한 점이 특색이다. 그는 서남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고고학적 자료를 섭렵하여 1936년에 신진화론을 발표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처음으로 세계선사학을 집필하였다(Childe, 1936). 차일드는 인류역사에 나타나는 도구의 형태와 기술이 한 시대의 사회제도 및 경제조직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Childe, 1936. p.14). 그리고 인간의 기술형태는 변천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인간이 농경문화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빙하기의 종식으로 서남아시아의 자연환경이 사막과 오아시스로 변화함에 따라 인간이 오아시스로 모여들어 식생들과 친숙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의 형성은 인간이 금속문화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와 같은 차일드의 이론은 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가 문화진화의 요인을 자연환경과 사회적 현상의 관점에서 규명하려고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신진화론에 기초한 차일드의 진화도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인류문화단계를 초기 진화론자들처럼 도구의 재료에 따라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시대로 분류하지 않고 경제양상에 바탕을 두고 구석기시대를 채집경제사회, 신석기시대를 원시농경사회, 그리고 청동기시대를 국가사회라고 규정하였다(Childe, 1936, pp.87-112, 114-142). 차일드는 위와 같은 진화도식을 제시하면서 각 문화단계의 사회제도와 경제조직 및 제반 문화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문화단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통시적인 측면에서 비교문화론을 많이 응용하였다.

유물과 유적을 통한 차일드의 비교문화론적 연구는 선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그를 文化傳播主義者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남아시아와 유럽의 선사문화를 비교연구한 차일드는 금속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가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믿었다(Childe, 1952).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금속문화의 경우는 유럽에서 개발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일명 비엔나 학파라고도 불리는 문화전파주의(cultural diffusionism)는 20세기 초반 영국과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인류문화의 전개과정을 전파론에 입각하여 설명해 왔다. 이 학파의 先鋒者인 스미스(Eliot Smith: 1871-1937)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와 관련된 인간의 성향은 창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중심지역인 일정한 곳에서만 문화가 발명되어 타지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Harris, 1968, 380-384). 아울러 전파주의자들은 복합전체로서의 문화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요소의 개념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토기의 형식 일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도 그 이유를 인간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는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성은 물론, 일반적인 문화의 속성을 간과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문화전파주의 이론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에 대한 해설에도 그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차일드는 문화진화의 추진력을 과학적 검증은 거치지 않고 단일변인과 문화전파론으로 설명한 점은 후세학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채택한 자연환경의 변인은 문화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데 분명히 進一步的인 가설이다. 그리고 진화론을 재생시켜 각 문화단계의 경제와 사회조직을 유물론에 입각하여 해설한 점 또한 차일드의 업적이라고 생각된다.

페루출신 고고학자 라코 호일(Rafael Larco Hoyle)의 업적은 국내에 간략히 소개된바 있다(최정필, 1994). 그는 위에서 언급한 차일드와 비슷한 시기인 1930년대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신진화론을 정립시키고 사회형태에 따라 문화단계를 설정하여 선사학의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라코 호일은 페루의 모치카(Mochica)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유적지를 발굴한 결과 과거에 설정된 문화단계의 명칭이 토기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발전을 상징하는 기능적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문화단계의 도식을 제시하였다. 그가 설정한 문화의 진화도식은 1)先土器時代 → 2)初期土器時代 → 3)村落形成時代 → 4)地域隆盛時代 → 5)地域聯合時代 → 6)帝國時代로 분류되어 (Larco Hoyle, 1938) 관계학계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라코 호일은 신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그가 제시한 진화도식은 단순히 페루문화사의 편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개념을 지닌 독특한 사회양상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Larco Hoyle, 1966, p.10). 라코 호일의 선사문화에 대한 주 관점은 진화론을 고고학적 견지에서 재생시켜 문화단계에 따라 사회형태를 설명하고 이를 국가의 형성과정과 연계시켰다는 사실이다. 그가 설정한 신진화론의 도식과 유물론적 진화의 개념은 미국 고고학자 윌리 (Gordon Willey) 그리고 문화인류학자 화이트(Leslie White)와 스튜워드(Julian Steward)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Steward, 1948, p.104).

화이트와 스튜워드와는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신진화론을 주장하고 문화의 속성을 연구하여 선사학에 공헌을 크게 끼친 문화인류학자이다. 화이트는 인류문화가 일반적으로 진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험세계를 통해서 축적되는 문화의 현상을 진화로 보았다. 화이트에 의하면 진화의 양상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B”라는 단계로 부터 “A”단계가 발생하며 “C”는 시간적으로 “B”이전의 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진화의 방향은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진보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White, 1949, pp.229-230). 화이트는 진화의 개념을 에너지 법칙으로 설명한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화이트는 진화의 척도를 연간 한사람이 자연으로 부터 자원을 획득하여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과 작업을 위해서 동력화된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수단(도구)의 효율성에 두었다 (White, 1949: pp.368-369). 바꾸어 말하면 인류역사를 살펴볼 때 구석기시대에서 문명사회인 오늘날의 에너지 양과 도구를 이용한 작업의 효율성이 문화단계에 따라 증가되어 왔으니 이것이 바로 문화진화의 징표란 것이다. 그는 진화를 하나의 계통적 발생으로 보았으나 19세기 단선진화론자 처럼 진화의 귀착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화이트의 선사학 발전에 대한 또 다른 공헌은 문화의 개념이다. 그는 문화를 하나의 복합체로 간주하고 그 속에 구조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연계되어 서로 작용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합체계를 이루는 문화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힘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그는 문화를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신체외적(extrasomatic)

수단으로 보았다. 즉, 문화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항상 일정한 형평(equilibrium)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논리는 1960년대 고고학에 응용된 체계이론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문화는 세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세가지 문화형태는 기술-경제체계, 사회제도 그리고 이념과 종교체계를 말하며 이들중 기술-경제체계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성격과 이념-종교체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화이트의 진화개념과 문화의 분석은 후에 등장하는 新考古學派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신진화론의 등장, 그리고 선사학의 발달과 연계시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학자는 스투워드이다. 그는 모든 문화가 진화한다는 화이트의 이론이 다양한 자연환경의 적응에서 생겨난 사회조직과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다고 비판하였다. 스투워드는 문화진화의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고학과 민속지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비교문화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이란 개념을 착안하게 되었다. 문화생태학은 문화의 핵심을 생계경제와 기술형태로 보고 이들 문화적 요소가 자연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teward, 1955). 스투워드의 문화생태학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적 개념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 집단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기술과 그들이 생활하는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들 두가지 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문화가 그 구성원들의 생계경제와 주거생활을 위해 자연에 산재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집단이 지닌 기술문화와 연관된 구성원들의 행위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형태란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작업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셋째, 구성원들 사이의 행위형태에 대한 상호관계와 다른 문화제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생존을 위한 행위가 그들의 사회활동,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스투워드의 문화생태학은 결국 한 집단의 기술-경제와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어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개념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이의 영향으로 나머지 문화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의 문화생태학은 자연환경과 연계된 기능주의적 관점이 마르크스, 차일드 그리고 화이트와 대별된다고 하겠다. 스투워드는 문화진화에 대한 관점도 다른 학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집단의 문화생태가 서로 다르면 문화도 상이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특정사회의 문화만이 정해진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19세기 진화론자들을 單線進化論者로 규정하는 반면에 문화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자신을 多線進化論者, 그리고 차일드와 화이트를 普遍進化論者로 명명하였다(Steward, 1953, p.316).

IV. 맺음말

지금까지 언급한 학자들은 선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학설중에서 문화진화론과 역사적 특수론은 선사학이론의 핵심이되어 고고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굳히게 만들었다. 특히 윌리(Gordon Willey)는 라코 호일이 발표한 신진화도식을 바탕으로 신대륙의 여러 지역을 문화단계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다. 윌리가 발굴한 페루의 비루(Viru)계곡 문화형태는 통시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Willey, 1953, 17-19). 한편 윌리는 그의 동료 필립스(Philp Philips)와 함께 신대륙의 선사학을 진화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발굴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문화는 대체로 그들이 설정한 단계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Willey & Philips, 1955). 이와 같은 고고학자들의 선사학에 대한 진화론 또는 신진화론 그리고 역사적 특수론적 접근은 꾸준히 전개되어 미국고고학자 부레이드우드(Robert Braidwood)는 차일드가 제기한 농경문화의 진화설(Neolithic Revolution)을 검증하기 위해 발굴사상 처음으로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조직하여 1949년 부터 중동지역 발굴에 착수해서 고대 자연환경을 복원하였다(Braidwood, 1952). 그리고 영국의 고고학자 크라크(Grahame Clark)가 花粉分析法을 영국의 스타 칼(Star Carr)유적지 발굴에 적용시켜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고대 인간의 취락 형태와 식생활을 훌륭하게 분석한 연구성과(Clark, 1954) 또한 영국지역에 대한 선사문화의 역사적 특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年代 이후에 新考古學(L. Binford, 1964, 1968) 또는 과정주의(K. Flannery, 1968) 그리고 후기과정주의(I. Hodder, 1982, 1986)를 주창하면서 고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했던 학자들의 이론은 선사학 연구에 혁명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Kuhn, 1962)이 역설한 과학적 혁명(scientific revolution)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현대고고학의 이론적 배경은 19세기의 진화론과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특수론 그리고 신진화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Binford, L., 1964. A Consideration of Archaeological Research Design *American Antiquity* Vol. 29, pp.425-441.
- Binford, L. & S. Binford, 1968.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Ed. by L. Binford & S. Binford. Chicago: Aldine.
- Braidwood, R., 1952. *The Near East and the Foundations for Civilization*. Condon Lectures, Oregon State for Higher Education, Eugene.
- Bury, John, 1932. *The Idea of Progress*. New York: Macmillan.
- Childe, G., 1936.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s.
- Clark, G., 1954. *Star Car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odd, Edward, 1897. *Pioneers of Evolution From Thales to Huxley*. New York: Freeport.
- Daniel, G., 1963. *The Idea of Prehistor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 Daniel, G., 1981. *A Short History of Archaeology*. London: Thames & Hudson.
- Daniel, G., 1955. Prehistory and Protohistory in France. *Antiquity*, Vol. 29, 209-214.
- Darwin, C., 1872. *The Origin of Species*. 6th ed. London: John & Murray.
- Darwin, Francis, 1950. *The Life and Letters of Charls Darwins*. New York: Henry Schuman.
- Dunnel, R. C., 1980. Evolution Theory and Archaeology.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3, Ed. By M. B. Schiffer. New York: Academic Press.
- Fagan, B., 1992. *People of the Earth*. New York: Harper Collins.
- Flannery, K. V., 1968. Archaeological System Theory and Early Mesoamerica, In *Anthropological Archaeology in the Americans*. Ed. by B. Meggers. Washington D. C.: Anthrop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 79-110.
- Francoeuer, R. T. 1965. *Perspective in Evolution*. Baltimore: Helicon.
- Gardiner, p., 1959. *Theory of History*. New York: Free Press.
- Graslund, B.,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New York: Crowel.
- Hatch, E., 1973. *Theories of Man and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dder, I., 1982. [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I., 1986.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hn, T.,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rk, G.S. & J.E. Raven. 1966.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co Hoyle, F., 1938. *Los Mochicas*. Lima.
- Larco Hoyle, F., 1966. *Peru*. Trans. by Tames Hogarth, Cleveland &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 Lovejoy, A., 1959. Buffon and the Problems of Species, In *Forerunners of Darwin, 1745-1859*. Ed. by B. Glas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84-113.
- Lowenberg, B. James, 1959. *Darwin, Wallace, and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Cambridge: Arlington Books.
- Lubbock, J., 1872. *Prehistoric Times As Illustrated by Ancient Remains and the Manners and Customs of Savages*. New York: D. Appleton.
- Malthus, R. T.,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J. Johnson.
- Piggott, S., 1959. *Approach to Archa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ger, R., 1959. *A Short History of Scientific Ideas to 190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pencer, H., 1855. *Social Statistics*. London: Macmillan.
- Spencer, H., 1862. *First Principles*. London: William & Naragate.
- Steward, J., 1948. A Functional-Developmental Classification of American High Culture. In *A Reappraisal of Peruvian Archaeology*. Ed. by W. C. Bennet.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Memoir 4.
- Steward, J., 1953. Evolution and Process. In *Anthropology Today*. Ed. by A. L. Kroeb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nke, R. J., 1990, *Patterns in Pre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L., 1949. *The Science of Culture*. New York: Grove Press.
- Wiley, G. & P. Phillips, 1955, Method and Theory in American Archaeology: Historical-Developmental Interpret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7, 723-819.
- Wiley, G., 1953, *Prehistoric Settlement Pattern in Viru Valley, Peru*.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 Wiley G. & J. A. Sabloff, 1980.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 Wilson, T., 1899. The Beginnings of the Science of Prehistoric Anthropology. *Proceedings of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Vol. 48, 309-353.
- 최정필, 1988.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Biological Evolution and Cultural Evolution 『한국문화인류학보』 20, 37-56.
- , 1994. 「新進化論과 韓國上古史 해설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6, 7-37.